가요계 일상회복, 대형스타들이 나섰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왼쪽부터 뷔,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을 비롯해 대형 가수들이 줄줄이 컴백한다.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

BTS·블핑·임영웅…‘별들의 컴백’ 개봉박두

6월 10일 새 앨범 발표하는 BTS
새 월드투어도 계획…벌써 들썩
블랙핑크도 이르면 6월 새 앨범
‘선주문 100만장’ 기록 깰지 관심
임영웅 첫 앨범·전국투어 준비





블랙핑크(왼쪽부터 리사, 지수, 제니, 로제)와 임영웅.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물고기컴퍼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가요계도 점차 활기를 찾고 있다. 그 분위기를 대형스타들이 전면에 나서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싸이, 임영웅 등 막대한 팬덤을 확보한 스타들이 줄줄이 새 앨범을 발표하고 국내외 전방위로 활동을 시작한다. 2년 동안 감염병 사태로 발이 묶인 대형스타들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활동 재개를 선언하면서 가요계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스타는 방탄소년단이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콘서트를 마치고 돌아온 6월 10일 컴백한다. 25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전 세계 동시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글로벌 활동을 이어간다. 소속사 측은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신규 앨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이 실물 음반을 내놓는 것은 지난해 7월 ‘버터’(Butter) 등이 수록된 싱글 CD 이후 11개월 만이고, 정규 앨범으로는 2020년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7’(MAP OF THE SOUL : 7)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국내에서는 정규 앨범 위주로 발표해온 만큼 이번에도 8곡 이상의 정규 앨범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앨범 발표와 동시에 새로운 월드 투어도 예상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포스트코로나 이후 정상적으로 콘서트를 열면 1회당 경제적 파급 효과가 최대 1조 2000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와 화제를 모았다.

블랙핑크의 컴백에도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이르면 6월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멤버 제니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곧 컴백한다. 기다려달라”며 예고해 화제를 모았다.

블랙핑크의 새 앨범은 2020년 10월 발표한 ‘디 앨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특히 블랙핑크가 이 앨범을 통해 ‘걸그룹 앨범 선주문 100만장’을 기록한 후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그룹 활동 이후 제니, 로제, 리사, 지수 등 솔로가수와 연기 등으로 팬들을 만나왔다. 오랜만에 완전체 활동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가장 큰 관심사다.

이들에 앞서 싸이도 이달 말 2년 만에 정규 9집 ‘싸다9’를 발표하고, ‘어머니들의 영웅’ 임영웅은 5월 2일 첫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미스터 트롯’ 이후 발표하는 첫 정규앨범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히어로’, 드라마 OST ‘사랑은 늘 도망가’ 등으로 현재까지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줄 세우기’ 중인 그는 이번에도 정규 앨범으로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올킬’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또 같은 달 6일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전국투어 콘서트를 열고 전국 팬들과 만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술꾼’이어 ‘공기살인’까지…이선빈, 6년만에 터졌다

‘술꾼도시여자들’로 생애 첫 칸 입성
영화 ‘공기살인’ 열연에 호평 쏟아져
최근엔 오디오 영화 ‘리버스’ 새도전



이선빈

배우 이선빈(28)이 제대로 상승세를 탔다. 화제작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의 성공 이후 선보인 영화 ‘공기살인’까지 호평받으며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선빈은 지난해 말 방송한 ‘술꾼도시여자들’에서 2030 직장인 여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며 데뷔 6년 만에 배우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2018년 공개 열애 이후 ‘배우’라는 타이틀보다 먼저 언급되던 ‘이광수 여자친구’라는 꼬리표까지 뗐다.

‘술꾼도시여자들’이 ‘2022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되면서 생애 처음 칸까지 입성했다.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정은지와 최근 핑크카펫을 밟는 기쁨을 누린 그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드라마로 칸의 초청을 받게 돼서 굉장히 기뻤다”고 벅찬 소감을 밝혔다.

칸에서 돌아온 뒤 22일 개봉한 주연작 ‘공기살인’으로 호평을 이끌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에서 언니와 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것을 알게 된 후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검사 역을 맡았다. 특유의 진솔한 매력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처절하고 간절한 감정 연기를 더해 ‘술꾼도시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로 관객과 만난다.

캐릭터를 위해 방대한 사건 자료까지 공부했다는 그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잘 표현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촬영하는 내내 살이 ‘쭉쭉’ 빠졌다.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나서는 코피까지 쏟았다”며 작품에 눌러 담은 진심에 대해 전했다.

최근에는 영상 없이 음성으로만 이야기를 채우는 오디오 영화 ‘리버스’ 출연을 확정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별장 폭발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은 여자 역을 맡아 그의 약혼자를 연기하는 이준혁과 호흡을 맞춘다. ‘리버스’ 녹음을 마친 후 ‘술꾼도시여자들’ 시즌2 촬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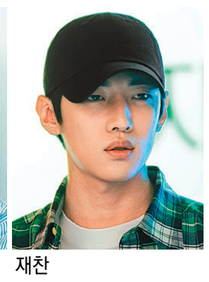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연기돌 샛별’ 보나·재찬, 잘 나가네!

‘스물다섯’으로 입지 다진 보나
최근 드라마 제안 받고 고심중
재찬 ‘시맨틱 에러’로 화제몰이



보나



재찬

‘연기돌 샛별’로 떠오른 그룹 우주소녀 멤버 보나(김지연)와 DKZ 재찬(박재찬)이 방송가에서 가파르게 이름값을 올리고 있다. 최근 연기자로서 대중에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그룹의 인지도를 올리는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드라마와 예능 제작진은 남다른 ‘화력’을 갖춘 이들을 섭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보나는 최근 종영한 tvN ‘스물다섯 스물하나’로 연기자 입지를 확고하게 다졌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김태리의 펜싱 라이벌인 고유림을 연기하며 11.5%(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견인했다. 그룹 데뷔 이듬해인 2017년부터 연기 활동을 병행했지만, 주연 배우로서 주목받기는 처음이다.

최근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 주인공 자리를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작을 고심하며 그룹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 우주소녀가 단체로 출연 중인 엠넷 아이돌 경연프로그램 ‘퀸덤2’에 뒤늦게 합류했다. 효린, 비비지 등 걸그룹들이 경쟁을 펼치는 프로그램을 위해 드라마 촬영을 마치자마자 연습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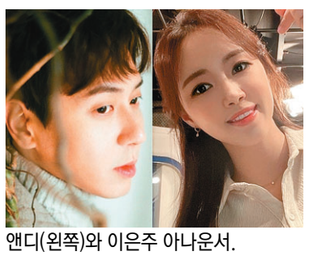
재찬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왓챠의 오리지널 시리즈 ‘시맨틱 에러’로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019년 데뷔 이후 꾸준히 웹드라마에 출연한 그는 BL(Boys Love·남성 동성애 코드의 로맨스물) 소재에 도전하며 화제몰이에 성공했다. 왓챠 시청 순위 1위에 올라있는 드라마가 중국 등 아시아권까지 인기를 확장하면서 덩달아 스타덤에 올랐다.

최근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연이어 출연했다. 12일 내놓은 DKZ의 새 앨범 ‘체이스 에피소드2. 마음’은 재찬의 인기에 힘입어 초동(앨범 발매 후 일주일) 판매량 10만 장을 넘겼다. 다음 달 초까지 그룹 활동에 집중한 후 본격적으로 차기작을 결정할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신화 앤디, 6월12일 이은주 아나운서와 결혼



앤디(왼쪽)와 이은주 아나운서.

그룹 신화의 앤디가 6월 12일 9살 연하의 제주 MBC 이은주 아나운서와 결혼식을 올린다. 멤버 중 에릭과 전진에 이어 세 번째로 결혼하는 멤버다. 25일 소속사 티오피미디어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 평생을 함께할 약속을 하게 되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앤디는 1월 이 아나운서와 열애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앤디는 “힘든 순간에 날 웃게 해주고 날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BTS 지민, 건강보험료 미납 아파트 압류 당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약 28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고가의 아파트를 압류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측이 25일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는 지난해 5월 현금 59억 원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압류 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 현재는 압류등기가 말소된 상태다. 소속사 측은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며 “장기 휴가·해외 일정 등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K팝 기획사들의 ‘드림콘서트’ 3년만에 대면 개최

케이(K)팝 기획사들의 연합 무대인 ‘드림콘서트’가 3년 만에 대면으로 돌아온다. 25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6월 18일 ‘2022 드림콘서트’를 서울에서 연다”고 밝혔다. ‘드림콘서트’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펼친 케이팝 축제다. 지난 2년간 감염증 여파로 온택트(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됐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드림콘서트’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전 세계의 케이팝 팬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선, 서울아산병원에 1억원 기부



김희선

배우 김희선이 서울아산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25일 “김희선이 건강을 잃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한다며 병원에 마음을 전해왔다”며 기부 사실을 알렸다. 김희선의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환우들의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희선은 앞서 소아암 환우 및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마스크 기부, 산불피해 이웃돕기 등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엑소 첸, 소집해제…그룹 내 네번째 군필자



엑소 멤버 첸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그룹 엑소 멤버 첸(김종대·30)이 25일 소집해제 됐다. 시우민, 수호, 디오에 이어 그룹 내 네 번째 군필자가 됐다. 2020년 현역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으나 이후 결혼과 아내의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됐다. 군 복무 당시 첸은 “여러분께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건강히 의무를 다 하고 올 테니, 그동안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길 바란다”고 각오를 밝혔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